

양, 형태는 아카시아나무에 속하였다. 나무가 법궤의 형태를 이루었다. 나타남은 금이었지만 모양은 나무였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양과 그리스도의 나타남 둘 다를 볼 수 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양은 아카시아나무가 상징하듯이 참된 사람에 속하였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목마르셨다. 그분은 여인에게 가서서 마실 물을 구하셨다(요4:7)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여행에 곤하셨다(4:6). 어떤 때 그분은 우셨으며(11:35), 또 어떤 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13:5). 그분은 전적으로 사람의 모양 안에 계셨다. 그분은 아카시아나무의 모양을 지니셨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하나님 이시다. 그분은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딤펴전 3:16). 참된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양 안에서, 그분은 여인에게 나아가서서 마실 물을 구하셨지만 이 사람의 나타남과 이 사람의 내용은 단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다. 매우 놀라운 어떤 분이 그날 그 여인에게 나아가셨다. 이 참된 어떤 분이 나타난 하나님이셨다. 한편으로 그분은 사람의 모양 안에 계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충만 되셨다. 그분은 안팎을 금으로 입힌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진 법궤이시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요, 기이한 분이시며 참된 인성의 참된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의 나타남으로서 하나님의 내용이 있으셨다. 그분을 채운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분이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사람의 모양 안에서이다. 법궤의 모양은 나무에 속하였지만 법궤의 보이는 것과 내용은 금에 속하였다.

법궤는 지성소의 유일한 내용이었다. 지성소는 길이 십 규빗, 넓이 십 규빗, 높이가 십 규빗이었다(출 36:9-15, 비교 왕상 6:20). 그것은 십 규빗 입방체였다. 이것은 예표상 그것이 전적으로 완전한 어떤 것임을 뜻한다. 이 완전한 장소 안에 하나님의 증거인 법궤가 있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 것임의 체현이신 산 인격이다. 이 산 인격은 그분의 모양인 인간적인 본성과 그분의 내용과 나타남인 신성한 본성으로 구성되고 조성된다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십계명으로 대표된 하나님의 참된 요소가 있으며 그분 위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다.

법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기 위해 충족되어야하는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그 첫째 요구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누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그룹들을 볼 것이다. 둘째 요구 조건은 금이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룹들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법궤는 금으로 된 화해 덮개로 덮혀져 있었으며 법궤 자체는 금으로 입혀졌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나타낸다. 셋째 요구 조건은 하나님의 의이다. 만일 누군가 법궤를 들여다본다면 그는 십계명을 볼 것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을 나타내며,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된다. 십계명의 요구 조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 조건들이 된다. 이 세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 앞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법궤에, 두 그룹이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금의 본성이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십계명이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주님을 찬양하라. 법궤 위에 또한 화해 덮개가 있으며 그 위에 구속하는 피가 뿌려진다. 이것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킨다. 원직상,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다(계 20:11-12). 그러나 법궤에서, 심판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 피흘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주님 자신은 단지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이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구속하는 피의 흘림으로 인해, 우리를 위한 그분의 구속의 피흘림으로 인해, 그분은 우리에게 화해 덮개가 되셨다. 그러므로 화해 덮개에서, 그분의 피흘림을 통한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성막의 영적인 적용, 79-82p, 84p발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활(하나님-사람의 생활)

- 기도생활(증가를 위해 기도함)

겔36:37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리

증가를 위해 기도함

에스겔서 36장 37-38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 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 사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 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때를 데려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 이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증가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 주여, 사람의 때를 데리고 오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인수의 증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한다고 느낀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이 우리의 인수를 사람의 때로 증가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이것을 하시도록 구해야 한다. 모든 지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인수의 증가를 위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현재의 인수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얼마 후에 인수가 두 배로 증가하기를 열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사람의 때를 데리고 오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날 인수의 증가를 위하여 에스겔서 36장 37-38절에 의거하여 이 구절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고 느낀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습관적인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음

교회 집회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 온 다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을 멈추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천연적인 기도가 교회 생활에 큰 좌절을 가져왔다. 만일 기도하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진정한 기도를 배워야 한다.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실수이다.

여러분 중 얼마는 기도 집회 가운데 아주 습관적인 방식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기도는 계시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의 기도는 짧지만 계시로 가득 차고 부연 설명이 없다.

짧은 기도들을 함

기도 집회에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한 번 이상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길게 기도하지 말라. 아무것도 지

어 낼 필요가 없다 단순히 필요한 것을 주님께 말씀드려라. 어떤 성도들의 기도는 작문을 해낸 기도가 많다 그들의 기도는 자연스럽지 않다. 짧은 기도가 훨씬 응답받기가 쉽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최상의 기도는 짧은 문장들로 된 기도이다. 어떤 성도들은 긴 문장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에 대한이 유를 말하거나 설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이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단순히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을 해방함

오늘 우리는 많은 철저한 기도를 통하여 함께 섞여져야 한다. 기도 가운데 단순히 우리의 영을 훈련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 한다. 기도만이 우리가 영을 훈련하고 심지어는 영을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상,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해방된 영이 일종의 섞임이다.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 짧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한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길다 긴 기도는작문한 기도이다 이것은 부담의 기도가 아니다 진정으로 부담이 있는 기도는 길게 지어 낸 기도가 아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방문함

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학교 친구 등-을 재검토하고 명단을 작성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검토해서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는 친척, 이웃, 친구, 학교 친구, 동료 등이 포함된다.

나. 명단에 따라 기도하고 누구를 먼저 돌보아야 할지에 관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함

명단에 따라 기도하고 누구를 먼저 돌보아야 할지에 관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접촉하도록 부담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모든 단계를 기도함으로 취해야 한다. 합당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 주님께 자신을 열어 놓음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자신을 열어 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142-146쪽 발췌)